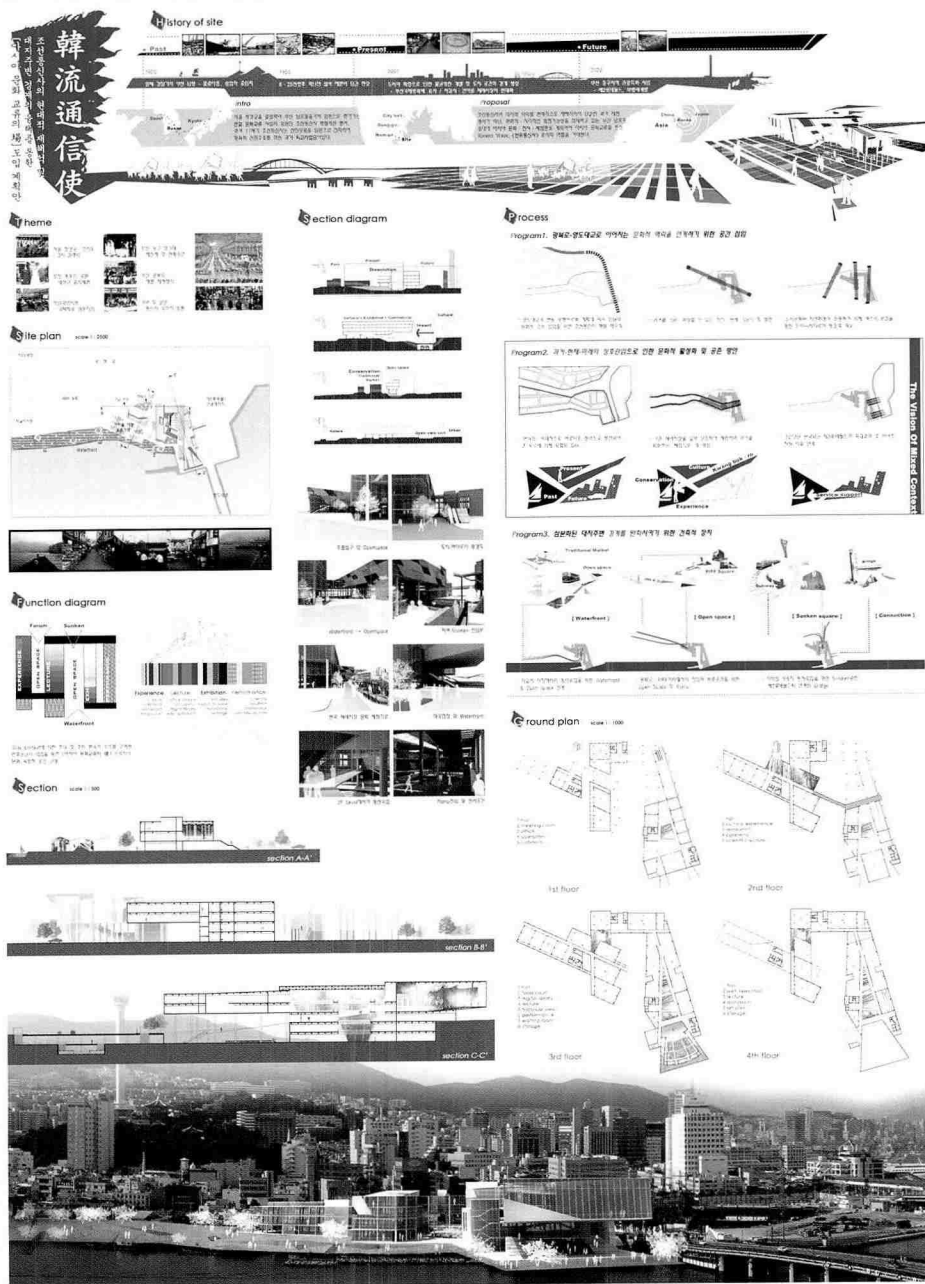


韓流通信使. 조선통신사의 현대적 재해석 및 대지주변 경계의 융해를 통한 아시아 문화 교류의 장 도입 계획안

김성산, 손희진, 정일향 / 부경대학교 건축학과



부산 남포동의 Context를 분석하여 그 문화적 특성을 대지 내로 유입시키고, 공간적으로 분절된 과거-현재-미래적인 경계를 융해시키고 공존하기 위해 중첩과 상호관입의 프로그램으로서 도시와 도시,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을 위한 공간을 적용하였다.

기본적으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행사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여, 문화체험·학술·전시·공연 등의 '국가간 문화교류의 장'으로서의 기능을 계획하였다.